

중국 덩핑시와 발전적 관계 모색 “스탬프 투어로 무주 즐겨요”

황인홍 무주군수, 덩핑시 공식 초청 방문... 문화·관광 분야 교류 확대 기대

황인홍 무주군수가 중국 허난성 덩핑시(鄧封市 등봉시 시장 천야오중)의 공식 초청을 받아 20일 출국했다. 무주군은 두 지역이 지난 2006년 '무예(태권도와 소림무술)라는 공통 분모를 기반으로 결연을 맺은 후 지속해 온 우호적 협력 관계를 다방면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이번 방문이 문화와 관광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와 보존 및 지원, 그리고 발전 지원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란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24일까지 이어질 4박 5일간의 일정에는 무주군의회 오광석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지역 내 농업 및 산림 분야 기관 대표 등 일행 10여 명도 동행한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일행 10여 명이 중국 허난성 덩핑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2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방문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대표단은 21일 덩핑시에서 주관한 환영 행사에 참석했으며 두 지역의 우정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앞으로도 세계 태권도 성지, 또 세계적인 환경 도시로서 덩핑시의 자랑스러운 현재 도시가 될 것”이라며 “이번 만남이 덩핑과 무주 두 지역은 물론, 중국과 한국 양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천야오중 시장은 “무주반딧불 축제 때마다 보내주셨던 극진한 환대와 소림무술에 대한 환호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며 “덩핑시의 초청에 흔쾌히 응해주시고 고맙고 지나온 20년을 기반으로 성사된 오늘의 만남이 앞으로 20년을 기약하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 대표단은 22일 소림사를 방문해 석공신 주지 스님과 환담하며 ‘소림무술과 태권도 교류’에 관해 논의했다.

또 중국의 4대 서원으로 꼽히는 유고서원과 허난성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중앙묘(도교서원)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만나는 등 문화재 보존 및 관광 지원과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23일에는 중국 5대 명산의 하나로 소림사가 위치해 있는 숭산(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에 올라 주변 환경과 자원들을 둘러볼 예정이다. 무주는 지난 2019년 국가지질공원(진안·무주) 인증을 받았으며 무주 오소리 구상화 강령미업(천연기념물)을 비롯한 5곳의

지질명소가 자리해 있다.

무주군은 이번 방문을 토대로 덩핑시와의 발전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계획으로, 소림무술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이미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각광받는 덩핑시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은 물론, 소림사 운영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 등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군은 지난 2004년 중국 허난성 덩핑시와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한 후 2006년 정식 결연을 체결했으며 소림무술단(무주반딧불축제)과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국제소림무술축제)을 중심으로 지금껏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환태문학관·최북미술관·곤충박물관·태권도박물관서 진행

무주군이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관광의 해”를 맞아 지역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9월(기념품 소진 시 조기종영 가능)까지 김환태문학관과 최북미술관, 무주곤충박물관, 국립태권도박물관 등 문화시설 4곳에서 스탬프 투어를 실시한다.

4곳을 모두 둘러 스탬프 투어를 완성(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김환태문학관 최북미술관 09:00~17:30 2층 사무실, / 무주곤충박물관 09:00~18:00 안내데스크, / 국립태권도박물관 10:00~17:30 라키비움)하면 미니 돛지리를 비롯한 태권도원 숙박할인권(50% 예약으로 인해 당일 사용불가) 등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태권도원 전경

무주읍에 소재해 있는 김환태문학관은 일제강점기 “문예시평”과 “예술의 순수성” 등을 저술한 문학비평가 김환태(무주출생, 1909~1944)의 생애와 순수 비평 문학정신을 기리는 유품과 저서가 전시돼 있으며 「책으로 그린 무주」 특별전을 관람할 수 있다.

김환태문학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최북미술관은 조선의 반고하라고 알려진 최북(무주출생, 1712~1760)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립미술관으로 연중 다양한 기획전시회가 열린다. 이날 29일까지는 한국아트크래프트 예술가 52명이 참가한 “ROMANTIC FOREST 무주, 제18회 한국아트크래프트협회 회원전”이 개최된다.

설천면에 자리한 무주곤충박물관(공립박물관)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환경 지표종인 반딧불이를 비롯해 다양

한 곤충표본들을 볼 수 있다.

생태 온실과 수족관도 있어 2백여 종에 달하는 식물과 덕유산 최상류부터 금강하구에 서식하는 다양한 물고기와 수달, 열대어 등도 만날 수 있다. 6월 10일까지는 다양한 나비와 벌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벌 & 나비 클로즈업”전도 개최된다.

국립태권도박물관은 무주곤충박물관(반디랜드) 인근에 있으며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태권도 전문 박물관으로 태권도의 역사와 발전, 세계화 과정을 보여주는 곳이다. 현재 태권도 아카이브 기획전 “흑백의 여로”가 진행 중이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박물관에서 태권도 즐기기”를 통해 태권도 이론 배우기와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무주군 관계자는 “무주방문의 해 많은 관광객들이 무주의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즐기시며 무주의 다양한 면모를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9월까지 진행하거나 산골영화제(6.5.~9.)나 반딧불축제(8.31.~9.5.), 방학, 휴가 때 맞춰 무주 문화기관 스탬프투어 꼭 완성해 보시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3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지난 21일 제36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수군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안문화예술충청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국의회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며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한주 의원, 부위원장으로 이종석 의원을 선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 현장점검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1일 집중안전점검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장수한누리전당을 찾아 직접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 운영에 따라 추진됐으며, 집중점검기간은 오는 6월 21일까지다. 현장에는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건축, 전기, 소방, 승강기 분야를 점검했다.

군은 조치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으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신속히 예산을 수립해 안전하게 후속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최훈식 군수는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내실 있는 집중안전점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더욱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사랑장학재단, 중학생 해외역사탐방

(재)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 진안군수)이 관내 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진안군 중학생 해외역사탐방을 실시한다.

진안군 10개 중학교 및 1개 기관(이랑학교)의 2학년 학생들이 참석하는 이번 탐방은 중국 및 베트남 등을 방문해 해당 지역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중학생 해외 역사 탐방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한 사회탐구 능력 향상과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현장 체험으로 넓은 시야를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2015년부터 관내 중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역사탐방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 상해와 베트남 다낭 지역 탐방을 통해 임시 정부의 활동 근



거지와 항일 독립운동의 유적지, 베트남 전쟁의 전적지와 베트남의 유적지를 체험하며 역사의 현장을 배운다.

중국으로 떠나는 1조는 5월 20일~23일(진안중, 안천중, 동향중, 진성중, 이랑학교)까지 진행되며 베트남으로 떠나는 2조는 27일~31일(진안여중, 용담중, 백운중, 미령중, 부귀중, 주현중)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일본 나가사키 지역 탐방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은 강제 징용과 독립 운동의 역사의 현장을 탐방하기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품의향연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 정터음악회성료

2024 품의향연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 정터음악회 지난 20일 장수시장 야외공연장에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장수문화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 장수군이 후원한 이번 음악회에는 송주섭 부군수, 이종석 군 부의장, 추영곤 교육장을 비롯한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함께 공연을 즐겼다.

이날 공연에서는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문권철 음악감독의 지휘로 소프라노 김미지와 함께 ‘청산에 살리라’, ‘강 건너 봄이 오듯’ 등의 곡을 협연해 선보이고, 색다른 남아공 민요와 한국 민요 등도 연주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장수문화원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오케스트라 단원을 상시 모집 중이며, 공연 영상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청년농업인 전문 컨설팅 추진

진안군은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추진한다.

컨설팅 대상자는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사업 대상자 및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다.

지난 17일 기본교육을 통해 10명을 대상으로 영농 현황 분석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를 진행, 이를 토대로 개인별 총 9회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1~4차 컨설팅에서는 청년농업인의 경영체 진단과 농장 현황분석을 토대로 방향성을 결정하고, 5~9차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영농기술과 경영기술을 접목한 미래의 농장 설계에 중점을 두어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앞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미래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